

Ⅲ-8 콘도·호텔 등 대형숙박시설 유치

추진부서 (사업주체)	신환력경제 정책관 (고창군)	팀장	김영화 (2342)	담당자	정승호 (2348)	추진율	전체대비	23년대비
							15%	100%

구 분		연도별 목표	세부 추진실적
2022	3분기	◦ 기업유치	기업 유치 활동 지속 추진
	4분기	◦ 업무협약	고창군⇄용평리조트 MOU(투자협약) 체결
2023	1분기	◦ TF 구성	사업추진을 위한 TF 구성
	2분기	◦ 업무협약	전라북도, 고창군, 용평리조트 간 협약사항 조율
	3분기	◦ 행정절차 추진	전라북도⇄용평리조트 MOU(투자협약) 체결
	4분기	◦ 행정절차 추진	사업추진을 위한 실시협약체결 등 행정절차 이행
2024		◦ 설계	
2025		◦ 착공	
2026		◦ 공사추진	

I 위치도(조감도)

[용평리조트]





[고창웰파크관광호텔]



Ⅱ 사업개요

구분	용평리조트	고창웰파크관광호텔	비고
사업기간	2022년 ~ 2029년	2023년~2024년	
사업비	364,000백만원 정도 (군비 14,000 민자 350,000)	30,000백만원 정도 (민자 30,000)	
위 치	심원면 염전부지 일원	고창읍 석정리 733번지 일원	
사업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지면적 660,000m² 473실 규모의 대형숙박시설 컨벤션센터(600인 수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지면적 8,038m² 90실 규모의 대형숙박시설 컨벤션센터(540인 수용) 	

○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연도	사업비	재원별 예산				
		계	국비	도비	군비	기타
	총 액	394,000	-	-	14,000	380,000
	2022	-	-	-	-	-
	2023	10,000				10,000
	2024	30,600				30,600
	2025	28,700			14,000	14,700
	2026	75,500				75,500
	임기후	249,200	-	-	-	249,200

Ⅲ 지금까지 추진상황

[용평리조트]

- 기업유치 지속 추진2022. 1. ~ 12.
- 고창군⇄용평리조트 투자협약(MOU) 체결2022. 12.
- 사업추진을 위한 TF 구성2023. 1.
- 용평리조트 대표 사업 승인2023. 6.
- 전북도, 고창군, 용평리조트 MOU 체결2023. 7. 6.
- 민간사업자 공모 공고2023. 8. 10.
- 민간사업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2023. 8. 30.
- 실시협약서 협약 체결2023. 11. 3.

[고창웰파크관광호텔]

- 기본 및 실시설계 추진2023. 2. ~ 5.
- 건축허가 신청2023. 6.
- 건축 인허가절차 이행2023. 7. ~ 10.
- 건축심의·구조안전심의 등
- 시공업체 선정2023. 11.
- 대형숙박시설 착공2023. 12.

Ⅳ 향후 추진계획

[용평리조트]

- 군관리계획 수립(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2023. 7. ~ 2024. 3.

- 전략환경영향·재해·교통영향평가 등
- 기반시설 기본계획 변경2023. 7. ~ 2024. 12.
 - 기반시설(상하수도 등) 용량 확보 및 환경부 승인
- 기획설계 및 행정절차 이행 2023. 11. ~ 2025. 8.
 - 건축심의, 구조심의, 지하안전영향평가 등
- 대형숙박시설 조성 추진 2025. 9. ~ 2029. 12.

[고창웰파크관광호텔]

- 대형숙박시설 준공2025. 2.

참고 추진실적 증빙자료 (관련 공문, 사진, 보도자료 등)

고창종합테마파크 MOU 보도자료

전북도민일보

2023년 7월 7일 금요일 011면

고창종합테마파크 건립 3천500억 투자

도·군·용평호텔엔리조트 협약
심원면 일대에 복합리조트
컨벤션센터·숙박시설 조성
관광인프라·경제활력 기대

고창군과 HJ메그놀리아 용평호텔엔리조트(이하 용평리조트·신달순 대표), 전라북도가 6일 3500억원 규모의 3자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전북도청 도지사실에서 열린 투자 협약에는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심덕섭 고창군수, 신달순 대표가 참석해 고창군 심원면 일대에 고창종합테마파크를 조성하기로 손을 맞잡았다.

용평리조트는 2027년까지 3500억원 상당을 투자해 고창군 심원면 일대에 휴양형 복합리조트를 짓고 해양 및 스포츠 레저시설 등을 조성한다. 호텔과 리조트, 600석 규모의 컨벤션 센터 등 총 4개 동을 건설하고 숙박시설은 최소 300실 이상의 중·대형급 규모로 예상된다.

전북도와 고창군은 용평리조트의 투자



고창군·전라북도·HJ메그놀리아 용평호텔엔리조트가 6일 3500억 규모 종합테마파크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가 현실화 될 경우 기업유치 보조금 300억원을 리조트 측에 각각 지원하게 된다.

군은 전담팀을 꾸려 사업추진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지원하는 등 속도전을 내고 있다. 리조트 측도 건축기본 계획을 건축사에 발주해 사업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고창군은 숙박시설 부족으로 관광객 유치와 대규모 행사 개최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 용평리조트의 투자로 대규모 숙박시설이 마련되면 더 이상 스쳐가는 고창이 아닌 머무는 관광지로의 대전신이 기대되고 있다.

군은 이 사업을 통해 600개 이상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고 관광 인프라 및 상권이 형성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극대화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새만금 국제공항(2023년 개항, 노

을대교(2030년 개통) 등이 예정돼 있어 향후 고창은 물론 전북 서부권 관광의 판도를 바꾸는 핵심 사업이 될 전망이다.

심덕섭 군수는 "전북도가 함께하는 3자 협약으로 종합테마파크 조성이 한층 가시화됐다"며 "더욱 긴밀히 협력하고 소통하여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고창=염용록 기자

고창종합테마파크 실시협약 보도자료

전라매일

2023년 11월 06일 월요일
007면 지역

〈고창군-용평리조트〉

고창종합테마파크 조성 협약 체결



2025년 공사 착공, 2028년 완공 예정...관광거점 역할 수행 기대

고창군이 ㈜H매그놀리아 용평호텔앤리조트와 고창종합테마파크 조성사업의 추진을 위한 실시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고창군은 지난해 12월 용평리조트와 양자 투자협약(MOU)을 체결하고, 올해 7월에는 전라북도까지 포함 3자 MOU를 통해 용평리조트의 민간투자(3,500억 원)와 지자체의 행정적 지원이라는 협조관계를 공고히 다져왔다.

이번 실시협약 체결을 통해 상호 역할과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대규모 민간투자를 현실화했다.

고창군과 용평리조트는 서해안 고창갯벌의 천혜의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휴양형 복합리조트와 및 레저시설을 짓고 명품 해양생태관광지 조성의 꿈을 구체화한다. <사진>

2025년 공사 착공에 들어가, 2028년 완

공으로 고창군의 새로운 관광거점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번 사업 추진을 통해 최소 300실 이상의 중대형급 숙박시설이 조성되면서, 고창군의 숙원사업인 '체류형 생태관광지 조성'에 한발짝 다가섰다.

아울러 고창종합테마파크 조성사업 추진을 통해 600개 이상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고 주변 관광 인프라 및 상권이 형성돼, 고창군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고창군과 용평리조트 간의 이번 실시협약은 고창종합테마파크 조성사업의 현실화를 알리는 첫 신호탄이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행정지원과 소통을 통해 성공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천혜의 자연환경을 누리고 즐길 수 있는 체류형 관광지로 도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창=박동현 기자